

## BTS 부산 공연 대비 관계기관 합동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특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부산광역시 등
- 총 3회 합동 점검(5.29., 6.8., 6.9.) 및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BTS의 부산공연(6.12.~6.13.)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 점검을 3회(5.29., 6.8., 6.9.)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BTS 공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과다요금으로 인한 관람객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리를 위해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먼저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이와 함께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 근절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와 현장 계도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숙박 예약 취소 및 환불 등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번호 120 및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

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기하는 각종 불편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BTS 공연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인 만큼 부산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4-205-3902)
		담당자	사무관	채현숙 (044-205-3903)

